

## U대회 물결... 광주가 '들썩'



광주U대회 첫 입촌식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선수단 첫 입촌식이 29일 오후 선수촌 내 국가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처음으로 입촌식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파라과이 선수단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43개국 선수단 3058명 입국... 오늘부터 매일 2000명씩 광주에 미디어센터 개관... 로이터·AP 등 국내외 취재진 1000여명 등록

빛고를 광주에 하계유니버시아드 물결이 넘실거린다. <관련기사 3·6·20·22면>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막을 4일 앞둔 29일 광주가 U대회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양학선 선수를 선두로 한국 체조대표팀이 선수촌에 첫 입촌하는 등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U대회 선수촌에서 동지를 틀었다. 일찌감치 입국한 선수들은 종목별 훈련장에서 선의 경쟁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대회기간(7월3일~14일) 중 주 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성화도 전북을 거쳐 30일 전남에 입성해 순회길에 들어가고, 1000여명의 세계 각국 기자들이 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에 타전할 메인미디어센터

터(MMC)도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어 대회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9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할 92개국 선수단 2122명이 이날 입국했다. 지난 28일까지 51개국 1082명이 입국해 35개국 936명이 선수촌에 이미 동지를 틀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파라과이 선수단이 이날 오후 4시 선수단 가운데 첫 입촌식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5일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선수촌에는 처음 들어왔지만, 공식적인 입촌식을 한 것은 이들 국가가 처음이다. 조직위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매일 2000명 안팎의 선수가 입국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5광주U대회 주요 일정

기간	행사명	장소
7.2 까지	선수촌 입촌식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6.30(화)	미디어센터 개관식	김대중컨벤션센터
7.1(수)	모의 개회식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
2(목)	FISU Gala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3(금)	개회식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11~14	2015 FISU (4일간)컨퍼런스	광주시청, 호남대학교
13(월)	폐회식 리허설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
14(화)	폐회식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8개국 1만318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일찌감치 입국한 일부 선수들은 대회기간 중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각 종목별 훈련장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다. 베네수엘라 유도팀과 우크라이나 유도팀은 문성고 체육관에서 몸을 풀었고, 축구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멕시코 등이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가볍게 발을 맞추는 훈련 등 현지 적응 훈련을 펼쳤다. 이밖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배구팀은 영주체육관에서, 프랑스·캐나다·헝가리·미국 수구팀은 영주실내수영장에서 1시간 여의 적응 훈련을 가졌다. 대회 기간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도 이날

전북 전주·익산, 충남 논산, 전북 군산을 거쳐 30일 전남으로 입성한다. 30일 영광·함평·무안, 7월 1일 무안·목포·영암·나주 등 전남 지역을 거쳐 광주로 입성해 조지위로 남겨지면서 화려한 대회 개막을 알리게 된다. 대회 기간 중 광주 U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에 전할 메인미디어센터(MMC)도 30일 개관돼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광주 U대회 취재를 위해 로이터, AP,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200여개 언론사 1000명 이상의 국내외 취재진이 등록해 대회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30일부터 1일까지는 광주 U대회 주최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집행위원회가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최종보고를 갖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연다. 윤장현 조직위원장과 플로르 루이 갈리앙 FISU회장, 김중량 FISU 집행위원 등 주요 집행위원과 위원, 차기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 U대회 준비상황 보고와 함께 유니버시아드 관련 정책들을 논의·결정하고 차기 개최도시들의 준비 진행상황을 승인·점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車·에너지·문화 3대 밸리 추진 전남, 전력수도·관광객 5000만 시대

민선6기 2년차 市·道政 방향

광주시는 민선 6기 2년차부터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밸리 등 3대 밸리를 적극 추진하고, 인사·입찰·행정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시민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5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자동차산업과 한국전력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추진되는 에너지밸리와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광주의 미래 3대 먹거리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청년 시정 참여, 영·호남 교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달빛동맹, 전남과의 상생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꼽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민자치형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내발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단 파견, 차이나 프렌들리 추진 등도 주요 성과로 내놨다. 시장과 직원간 '상명하복'식의 딱딱한

공직 문화를, 동등한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재정립에 나선 점도 민선 6기의 변화이자 성과로 꼽혔다. 한편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집적, 전남관광객 5000만 시대 개막, 중국 지방 발전전략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2곳 추가 설치,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등을 민선6기 중점과제로 정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9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1년 성과로는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등 숙원사업의 재개, 7만7000개의 일자리 제공, 국내외 231개 기업과의 2조5821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광주 및 전북과의 상생 등을 먼저 거론했다. 농어업 분야 진전, 무안공항 및 호남고속철도 활성화, '100원 택시'로 대표되는 각종 공약 실천, '가고싶은 섬가꾸기' 등 브랜드 시책 추진 등도 좋은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자평이다. 2년차 민선 6기 전남도는 지난 1년간 한국전력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여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호남고속철도 개통, 한중 FTA 타결 등의 변화상 에 따른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3주간 개관 페스티벌

작가 29명 작품 33편 선보여

오는 9월 4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이 공식 발표됐다. 아시아예술극장 김성희 예술감독은 29일 극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주간(9월4일~21일)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예술극장의 비전을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작가 29명의 작품 33편을 선보인다. 이 중 16개 작품은 예술극장이 자체 제작했고 12편은 세계 초연이다. 영상, 설치, 연극, 음악극, 퍼포먼스,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국가간 협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태극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열병의 방', 차이밍량 감독의 '당나라 승려', 중국 경극단의 '홍등기', 비엔나 페

스티벌 등과 공동제작한 시각 연극 '만마리의 호랑이'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김성희 예술감독은 "진취적인 목소리로 오늘을 이야기하는 아시아 동시대 예술 작가의 작품을 제작했다"며 "예술극장은 아시아 공연예술계가 당연한 가장 큰 어려움인 제작과 유통시스템을 구축,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허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8월까지 어린이 문화원 등 나머지 4개원의 개관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보배 금조준  
광주U대회 D-3 UNIVERSIADE GWANGJU 2015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속해선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